

성경 연구 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Scripture Study Committee)

제 28 차 중앙 총회

나사렛 교단

2013 년 6 월 19-28 일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성경 연구 위원회

위원회 위원 명단 (MEMBERSHIP OF THE COMMITTEE)

개리 베넷(Gary Bennett), 스티븐 딜먼(Stephen Dillman), 브래들리 에스텝(Bradley Estep), 토머스 킹 (의장) (Thomas King (chair)), 조셉 나일(Joseph Knight), 멜빈 맥컬로(Melvin McCullough), 제시 씨 미덴돌프(Jesse C. Middendorf), 토머스 노블(Thomas Noble), 그리스천 사미엔토(Christian Sarmiento), 아쎬 스니더스(Arthur Snijders), 알렉산더 바루기즈 (총무) (Alexander Varughese (secretary)), 데이빗 윌슨(David Wilson). 스탠 잉거솔(Stan Ingersol)과 셸리 마빈(Shirley Marvin)이 탁월하게 돕고 있음.

개관 (OVERVIEW)

중앙 감독회는 성경 연구 위원회(SSC)에게 2009 중앙 총회의 3 개 결의안에 대해 숙고하고 2013 년 중앙 총회 시까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적절한 권고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다음의 보고는 신조 4 절 성경(Article IV (The Holy Scriptures) of the Articles of Faith)에 관한 결의안 JUD-805 에 대한 위원회의 반응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신조에서 속죄(Article VI. Atonement, of the Articles of Faith)에 관해 다루는 결의안 JUD-802 및 JUD-816 에 관한 위원회의 반응을 다룬다. 보고서는 성경 연구 위원회가 신조에 대한 미래의 결의안을 소개하는 것에 관한 결의안으로 절정을 이룬다 (The report culminates with a resolution from the Scripture Study Committee regarding the referral of future resolutions addressing the Articles of Faith).

I. 신조 4 절 (성경) 에 관한 2009 년 중앙 총회 결의안 JUD-805 에 대한 반응

신조 4 절에 관한 결의안 JUD-805. 성경. 다음의 구절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계시해 주시며 (inerrantly revealing the will of God concerning us in all things necessary to our salvation)”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 “전적으로 무오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최고의 권위 (inerrant throughout, and the supreme authority on everything the Scriptures teach)”로 대체.

권고 (RECOMMENDATION)

성경에 관한 신조 4 절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JUD-805 결의안을 거부해야 함. 위원회는 4 절을 지금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근거 (RATIONALE)

성경의 전적 무오성(the complete inerrancy of Scripture)을 명백하게 주장하고자 2009 년 중앙 총회에서 나사렛 신조의 4 절을 수정하자고 한 제안은 우리의 삶과 신학에서 성경이 올바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the Bible be given its rightful place) 관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제안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고 위원회는 이러한 관심에 대해 우리의 감사를 포함으로 시작하며 교회와 각 사람의 생활에서 성경의 위치에 대해 높이 보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의 연대를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존 웨슬리는 자신을 *호모 유니스 리브리* (*homo unius libri*, ‘한 책의 사람’ [a man of one book]) 이라고 선포했고 감리교도를 ‘순전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성경-기독교를 전파하고자 결심한 ‘성경 그리스도인들’ (‘Bible-Christians’ determined to preach ‘plain, old Bible-Christianity.’)¹ 이라고 묘사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 교리와 윤리를 위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 다른 모든 절과 마찬가지로 4 절도 신조이며 따라서 우리 신앙의 일부이다. 그러한 측면과 정신 속에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1. 4 절의 강점 (THE STRENGTH OF ARTICLE IV)

우리는 먼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commitment)을 선포하는 현재 4 절의 강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시작하고자 한다.

(a) 충분하고 신적인 영감 (Plenary, divine inspiration)

4 절은 먼저 성경을 ‘신적’(divine)이고 ‘충분한’(plenary) 것으로 명확히 진술한다. 즉 성경 전체(*whole*)가 영감 되었고 예술 작품이 영감 되었다고 말해지는 단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영감 되었다. 성경 전체(*as a whole*)가 영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문을 문맥과 상관없이 뽑아내거나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cannot take texts out of context and quote them arbitrarily as ‘the word of God.’). 성경이 영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신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o say that the Bible is inspired is to say that we have to understand biblical theology as a whole). 우리는 신적인 영감이 사람 저자를 무효화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Nor do we believe that divine inspiration cancels out the human authorship). 각 책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누가, 바울, 심지어 저자 미상의 경우와 같이 꽤 다른 저자와 상황(*human authors and contexts*)을 반영하는 독특한 문체와 단어 그리고 관용어들을 사용한다. 우리는 저자들의 정신활동이 완전히 제거되고(*their minds were blotted out*) 단지 꼭두각시(*puppets*)가 되었다는 기계적 영감설(*mechanical idea of inspiration*)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정신적 능력은 고양되고(*mental powers were heightened*) 자유 의지는 오묘하고 세심하게(*subtle and sensitive*)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들이 내러티브(*narrative*: 통상 이야기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

¹ Preface to Sermons, *Works* [BE], Vol. 1, page 105; and ‘Short History of Methodism,’ *Works* [BE], Vol. 9, page 369.

이야기 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이고 내러티브로 많이 통용됨- 역주)를 기록하기 위해 정보를 모을 때든지, 또는 전에 이미 기록된 것들을 편집할 때든지, 성령님에 의해 직접 영감 받은 말씀을 기록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길, 하나님의 행동(God's acts), 그리고 성육신 하신 아들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supremely God's revelation in his Incarnate Son)를 드러낸다는 목적에 합당한 문서들의 모음(a collection of documents)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3 차 로잔 대회 케이프 타운 언약(the Cape Town Commitment of the Third Lausanne Congress)에 동의한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에 영감되며 사람 저자들을 통해 말씀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spoken and written through human authors) 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성경을 지고하고 유일무이하게 권위가(supremely and uniquely authoritative)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행동을 주관하는(governing our belief and behavior) 것으로써 복종한다(submit). 우리는 구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한다(testify). 성경 전체가 추가적인 계시에 의해 능가되는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the whole Bible is the final written word of God, not surpassed by any further revelation) 확신하며 성경이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말하는 것을 지속하도록 (continues to speak God's truth in fresh ways to people in every culture)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한다.²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교(the mission of God)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케이프 타운 언약을 강력히 지지한다.

(b) 하나님의 뜻을 무오하게 드러냄 (Inerrantly revealing the will of God)

둘째, 4 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무오하게(inerrantly) 드러낸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목적이 한낱 사람의 철학, 형이 상학, 또는 윤리학에 의해 무시될 수 없다(cannot be set aside)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이성과 문화는 모두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의심하지만 우리 각자는 성령님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으로 (시 119:105) 믿는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나 (삶의 모든 것을 형성하는)

² *The Cape Town Commitment: A Confession of Faith and a Call to Action* (The Lausanne Movement, 2011).

하나님의 것들(the things of God)에 관해서는 영감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에 고개를 숙여야(bow) 한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구체적 사실(in every factual detail)에 있어서 절대적 무오와는 달리(distinct from absolute 'inerrancy'), 통상적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계시해 주시는' ('inerrantly reveals the will of God in all things necessary to salvation') 성경의 '무류성'(the 'infallibility' of Scripture)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편, 성경에 추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적인 계시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o claims to private revelations of the truth of God which are additional to Scripture are acceptable)는 사실을 함의한다.

그러나 이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무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단순히 진술한다고 생각하나 이는 순진한(naïve) 생각이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engaged in *interpreting* the Bible).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단어는 문장 속에서, 문장은 단락 속에서, 단락은 그 책 전체의 주장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각 책은 성경 전체 속에서 해석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약의 구약의 배경 속에서 해석하고 구약은 신약의 빛에서 특히 발전적인 계시(progressive revelation)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로 이끄는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해석함에 있어 교회의 오랜 신조의 인도를 따른다 (We follow the guidance of the ancient creeds of the Church). 이러한 모든 것은 면밀한 학문성(careful scholarship) 뿐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요한다. 모든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특별히 신조 (the Articles of Faith)와 오랜 신조들(the ancient creeds)의 성경 해석을 수용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교회에 충성하는 정신 속에서라는 조건하에 (provided it is in a spirit of loyalty to the Church) 해석의 자유를 인정한다. 우리가 교회의 교통 속에서 함께 성경을 해석할 때 (As we interpret Scripture together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Church), 성령님께서 장래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롬 12:2) 인도하시기를 고대한다.

(c)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 (All things necessary to our salvation)

셋째, 4 조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in all things necessary to our salvation...")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는 목적이 '천국에 이르는 길'(the way to heaven)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매우 명확했다. 성경은 연감, 마술 책, 또는 역사나 과학

교과서로 간주되면 안 된다 (not to be treated as an almanac or a magic book or a text book of history or science). 성경의 진리는 고대 세계의 사고 방식(the thought forms of the ancient world)과, 문화, 상황, 지리, 우주론(cosmology), 그리고 언어로 표현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 했다(*was ‘necessary to our salvation’*). 그러므로 성경이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행동의 설명이라는(the God-given account of God’s action in space-time history) 것은 우리 믿음의 일부이며 따라서 역사 속에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필수적 요소이다 (an integral part of God’s revelation in history and uniquely in the Lord Jesus Christ).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다는 ‘자연이라는 책’(the book of nature)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이 진보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과학이(modern science) 기독교적 확신에 기초한 기독교적 문화 속에서 일어났고 (arose in a Christian culture out of Christian convictions),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통해 아는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모든 것과 모순되지 않고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to be more than compatible) 우리는 믿는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법(the law of God)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 해석된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사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반 규범적 거절이다(antinomian denial of the faith). 기독교 윤리는 교회가 성령의 인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대대로 이어져 온(through the ages) 지혜에 주목함으로써 형성된다.

(d)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교회의 교리가 될 수 없다 (What is not from Holy Scripture cannot be a doctrine of the Church)

넷째, 4 절의 마지막 복합 절(the final compound clause of Article IV)은 아마도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하다. 그 구절은 (웨슬리의 25 개 조항을 통해 [via Wesley’s Twenty-five Articles]) 영국 국교회의 39 개 신조 6 절에서(from Article VI of the Thirty-nine Articles of the Church of England) 유래한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기에, 사람에게 요구될 수 없고 신조로 믿을 수도 없거나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Holy Scripture containeth all things necessary to salvation; so that whatsoever is not read therein, nor may be proved thereby, is not to be required of any man [*sic*], that it should be believed as an article of the faith, or be thought requisite necessary to salvation).

이는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중 하나, 즉 성경만이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자료(the only source of Christian doctrine)라는 구호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확고히 한다. 그것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 또는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것만이 신조로서 또는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될 수 있다는 하는 것이다. 물론, 웨슬리주의자로서 (교회의 다른 주요한 전통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성경은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교회의 전통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거룩하게 된 이성(*sanctified reason*)을 사용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 따르면 그것들 중 어떤 것도(*none of these*) 그 자체로(*in itself*) 기독교 교리를 위한 자료나 근거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나사렛 신조를 볼 때 이 점은 실로 사실이다. 그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파생한다(*all derived from Scripture*). 기독교 전통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도록 도와주고 사람의 이성과 경험은 이러한 해석과 우리의 교리를 명확히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성과 경험은 이 신조들이 형성되는 방식을 만들었고 여전히 우리가 교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며 그것들을 보완한다(*corroborate them*). 그러나 신조에서 우리가 교단으로서 함께 주장하는 모든 교리는 사실 성경에 근거하며 성경에서 유래한다.

그것이 4 절의 강점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해되면 그것은 유익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신학에 대해 충분한 보호물이 될 것이라고 위원회로서 우리는 믿는다. 그것의 강점과 명료성은 나사렛 강단에서 설교하고 나사렛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진술이든지 그것의 진리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성경이 ‘전적으로 무오하다’(inerrant throughout)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더러 웨슬리주의 전통에 충실하지 않고(*untrue*), 웨슬리주의 신학과 양립될 수 없으며(*incompatible*), 성경 자체에 의해 정당화 되지 않는다(*unwarranted by the Scriptures themselves*)고 위원회는 믿는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서 연감(*almanac*)이나 백과 사전(*encyclopedia*)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권위’ (*the supreme authority on everything the Scriptures teach*)라고 진술하는 것은 단지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뿐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서도)도 해결되지 않은 수 많은 논쟁들이 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대해 완전하고 상세한 문자적 실제적 정확성(*complete detailed factual literal accuracy of every part of Scripture*)을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오’ [*inerrant*])

throughout’])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사람들을 불필요하고, 마음을 산만하게 하며(distracting), 헛된(futile) 논쟁들로 이끌 뿐이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 하기 위해 이 주요한 단락(key-note paragraph)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 완전히 구체적인 ‘무오성’에 대한 요구(this demand for complete detailed ‘inerrancy’)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것이 불필요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unnecessary and misleading), 그리고 나사렛 신학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상세한 무오성 주장의 칼빈주의적 기원 (THE CALVINIST ORIGIN OF THE ASSERTION OF DETAILED INERRANCY)

1974 년에 해럴드 린드셀 (Harold Lindsell)이 저술한 *성경을 위한 전투(The Battle for the Bible)*로 인해 시작된 ‘무오성’에 관한 논의는 지난 수십 년간 특히 북아메리카에서 왕성했고 무오성에 관한 그러한 주장은 처음에는 칭송할만해 보였다. 그러나 모든 구체적인 사항(in every detail)에서 (‘전적인 무오성’ [inerrancy throughout])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the complete inerrancy of Scripture)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특정한 칼빈주의 전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특정한 칼빈주의 신학 방법의 일부이고 (It is part of a particular Calvinist theological method) 꽤 자주 그 신학을 특징짓는 합리주의(rationalism)와 분리해서는 이해될 수 없다. 프린스턴에서 19 세기와 20 세기 초에 가르친 칼빈주의 신학자들인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와 비 비 워필드(B. B. Warfield) (1623-1687) 는 스위스와 이탈리아 신학자(the Swiss-Italian theologian)인 프란시스 투레틴 (Francis Turretin) (1623-1687)과 같은 이전의 칼빈주의자에게서 이러한 주장을 물려 받았고, 그것은 그들의 칼빈주의적 관심에서 직접 왔다. 칼빈 이후 그 세기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교황과 추기경의 권위에 대항하고자 성경의 권위를 주장했다. 그들의 변증적 전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함축된 어떤 것(something which was implied by faith in Christ) 보다는 성경의 권위로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방법은 먼저 성경의 진리성과 권위를 세우는 것(to establish first the truth and authority of the Bible)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었다 (and then build faith in Christ on that). 그러므로 지적인 설득과 변증학이 먼저 왔다 (Intellectual persuasion and apologetics therefore came first). 약간의 루터주의자들도 비슷한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마틴 루터와 결별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의 많은 개혁주의 고백들(the Reformed Confessions)이 성경에 관한 신조로 시작됐다. 그들이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이다. 신학에서 연역적 방법을 고수하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성경은 그분에게서 나왔기에 성경은 반드시 가장 작은 상세함 에서도 아무 오류가 없다는 의미에서 (in the sense of being without any error in the smallest detail) ‘완전’(perfect)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성경 본문 자체를 공부해서 얻은 결론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성경에

가져온 전제였다 (a presupposition they brought to the Bible).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 네델란드와 스코트랜드의 전통은 (헤르만 바빙크[Hermann Bavinck],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제임스 오르[James Orr])는 달랐고 존 칼빈과 개혁자들과 가까웠다. 무오성에 대한 고집은 특히 미국의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 강했고 이는 아마도 근본주의가 왜 특히 미국적인 현상인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존 칼빈, 마틴 루터, 올리히 쾰빙글리 등 대륙의 개혁자 자신들은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영국 국교회의 39 개 신조 6 절에서도 그러한 주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주장은 종교개혁 후 기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개혁자들 자신에게는 성경을 신뢰하도록 이끈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 (it was faith in Christ which led to trust in the Bible). 마틴 루터는 먼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솔라 피데 [오직 믿음] [sola fide]) 를 선포했고 교황이 이 주장을 배격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교회가 성경에 종속되어야 할 필요성 (솔라 스크립투라 [sola scriptura])을 느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이후에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신학자들에게는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faith in the inerrancy of the Bible became the foundation for faith in Christ). 이러한 칼빈주의 전통이 19 세기 프린스톤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을 통해 전해져서 1920 년대의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의 전적이고 구체적인 무오성(the total, detailed inerrancy of Scripture)에 대한 믿음을 취하게 된 것이다. 1970 년대에 해럴드 린드셀은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특정한 칼빈주의 신앙에 붙잡아두려 했고 다른 곳이 아니라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심각하게 분열시켰다. 상세한 무오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모든 전개는 (This whole development with its concern with detailed inerrant facts) 칼빈주의 전통이 얼마나 많이 합리주의적 근대주의(rationalistic modernity)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웨슬리주의자들은 본래의 종교개혁에 더 충실하다 (Wesleyans are truer to the original Reformation). 우리에게 증명된 성경의 무오성으로 인해(having the inerrancy of the Bible proved to us)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사자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our faith in Christ is what leads us to trust his messengers, the prophets and apostles, and all who wrote the Holy Scriptures). 그렇다고 우리가 교단으로서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거나 역사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특히 우리 주님의 탄생, 생애,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행동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분명히 믿는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사실적 무오성의 문제(the issue of *detailed factual inerrancy*)를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거나 성경의 전적인 권위와 신뢰성을 주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국 국교회 39 개 신조 6 절의 제목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하여’ (Of the Sufficiency of Holy Scripture)라고 되어있고 이 ‘충분성’ 개념은 존 웨슬리가 미국 감리교(American Methodism)에 준 25 개 신조 5 절의 제목에도 나타난다³.

3. 왜 칼빈주의의 이러한 믿음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인가 (WHY THIS CALVINIST BELIEF IS THE WRONG WAY TO ASSERT THE AUTHORITY OF SCRIPTURE)

‘충분성’ 대신에 구체적인 사실적 무오성(the detailed factual inerrancy)을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려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불리함이 있다. 첫째, ‘오류’(‘error’)라는 개념은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인데 무엇이 ‘오류’를 구성하는가를 정의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단어는 절대적 정확성(absolute accuracy)의 필요를 뜻하는 것 같으나,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적절한가? 우리는 모든 고대 문서에서는 생소한(foreign) 근대 과학의 용어 같은 그러한 정확성을 주장하는가? 어림수(round figures)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모든 내러티브는 반드시 연대기적 정확성을 엄정하게 준수해야 하는가? 은유(metaphors)와 비유는 허용되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은 사실적으로 정확해야만 한다고(must be factually accurate) 주장할 것인가? 성경은 은유와 비유 그리고 다른 비유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우리는 어디에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하는지를, 즉 무엇이 문자적 사실이고 무엇인 은유와 비유이고 시이고 환상인가를 결정할 것인가? ‘오류’라는 개념은 반드시 정도의 문제인 어떤 것에 적용되는 절대주의자의 단어이다 (The concept of ‘error’ is an *absolutist* word applied to something which is necessarily a matter of *degree*).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주 끔찍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를 바로 솔직히 바보 같고 무익한 질문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it is consequently a nightmare since it leads us straight into frankly silly and futile questions). 이 사실이 두 번째 불리함이다. 즉 이 구체적 ‘무오성’이라는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 구체적 부분에 대해 무익한(unprofitable) 논쟁을 하도록 관심을 돌리게 한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을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 이었나 아니면 아비멜렉 이었나? 무덤에 두 천사가 있었나 아니면 한 천사만 있었나? 부활절 아침에 무덤에는 여러 여자들이 있었나, 한 여자만 있었나? 유다는 스스로 목을 댔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었나? 복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부분들에 대해 결국은 시간 낭비뿐인 수 많은 논쟁이 있다. 고대의 문서를 다루기에 명백한 모순이 정말로 모순인지 아닌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종종 우리에게 없다. 그러므로 완전한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변론을 내는 신화와 족보’에 대해 논쟁하고 ‘헛된 말에 빠져’버린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딤후 1:4-6) 하찮고 무익한 논쟁에 빠지는 것이다.

³ 구원을 위한 ‘충분성’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의 책을 보라. Paul Merritt Bassett, ‘The Theological Identity of the North American Holiness Movement: It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Role of the Bible,’ *Varieties of American Evangelicalism* (Knoxville, TN, 1991), 72-108 페이지, 특히 76-79 페이지.

성경의 진리에 관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경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What persuades us of the truth of Scripture is that when it is preach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we come face to face with the Lord).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삼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안다 (고리도전서 15:3-5).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복음의 중심적 사실들(the central facts of the gospel)로 우리에게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의 역사성을 의심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확한 사실들을 부여 받음의 문제가 아니다 (it is not merely a matter of being given accurate facts). 오히려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만나고, 알고, 그분을 믿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이라는 내러티브가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다 (how the narrative of the gospel carries conviction when we evangelize). 그러한 일은 사람들에게 무덤에 천사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그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the old, old story’)를 말할 때 성령님께서 확증하신다(validated).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의 권위를 방어하고자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존경하지만, 이러한 칼빈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웨슬리주의자로서 우리는 확신한다.

4. 나사렛 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 (THE UNITED VIEW OF NAZARENE THEOLOGIAN)

1920 년대에 근본주의자와 감리교도간의 논쟁이 정점에 있었을 때 나사렛 지도자들이 근본주의자와의 연대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선택에서 근대주의/ 자유주의 신학 (Modernist/Liberal theology)이 에이치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가 언급한 것처럼, ‘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 없는 인간들을 심판이 없는 나라로 이끄시도록’ (‘A God without wrath brought men without sin into a kingdom without judgment through the ministrations of a Christ without a cross’) 만들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주요한 신학자인 에이치 오튼 와일리(H. Orton Wiley)는 그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⁴ 웨슬리주의자들은 근대주의에 반대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처럼 단순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폴 엠 배셋

⁴ 근본주의자의 관심이 성결 운동(the holiness movement)과 나사렛교단을 침해한(invaded)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Paul Merritt Bassett, ‘The Fundamentalist Leavening of the Holiness Movement, 1914-1940: The Church of the Nazarene: A Case Stud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WTJ)* 13:1 (1978), pages 65-91; and Stan Ingersol, ‘Strange Bedfellows: The Nazarenes and Fundamentalism,’ *WTJ* 40:2 (2005), pages 123-141.

(Paul M. Bassett)은 리처드 왓슨(Richard Watson), 더불유 비 포프(W. B. Pope), 존 마일리(John Miley)와 같은 웨슬리주의 신학자들을 따르며 다음과 같이 썼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신학적 자유주의(American theological liberalism)에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대항한 사람들의 명단에 와일리는 분명히 들어간다.”⁵ 그의 책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에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으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began “to substitute the written Word for Christ the Living Word)는 점에서 종교 개혁 후의 개신교 스콜라주의자들 (Protestant scholastics)을 비판했다. 폴 배셋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이치 오톤 와일리는 자기가 저술을 하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시대의 근본주의가 스콜라주의적 칼빈주의(scholastic Calvinism)로부터 성경의 구체적 무오성(the Bible’s detailed inerrancy)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비판했다는 것은 확실하다.⁶ 오해에 의해 살아계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대신해 잘못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는 세 개의 ‘가치 있는 제왕’(worthy monarchs) 즉, 교회, 성경, 그리고 이성에 대해 와일리는 경고하기 까지 한다. 1928 년의 중앙 총회에서 신조 4 절의 문구를 만든 사람이 에이치 오톤 와일리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사실 자체가 4 절이 수정되지 말아야 할 좋은 이유이다.

1978 년 3 월 10 일에 발간된 *크리스챤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장에게 쓴 편지에서 티모시 엘 스미스(Timothy L. Smith)는 웨슬리주의자는 ‘자유주의적’(liberal) 또는 ‘근대주의자’(modernist) 입장 그리고 비 비 워필드와 해롤드 린드셀과 연관된 좁은 의미의 성경 무오설 주장자들 모두를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티모시 스미스는 ‘...우리 웨슬리주의자들은 근대의 신칼빈주의 스콜라주의에 의해 대표되는 것보다 오래되고 훨씬 더 넓게 복음적인 입장에 서있다.’ (...we Wesleyans stand in an older and much broader evangelical tradition than that represented by modern neo-Calvinist scholasticism’). *크리스챤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에게 쓴 편지에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비근본주의적 견해의 뿌리는 종교 개혁자의 글들에 놓여있으며, 무오성에 대한 하지와 워필드(Hodge-Warfield)의 견해는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아도니람 제이 고돈(Adoniram J. Gordon), 드와잇 엘 무디(Dwight L. Moody)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 또는 전국 성결 협회(the National Holiness Association)의 지도자들이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고 스미스는 밝혔다. 그는 ‘랍비적 유대주의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부인한 성경에 관한 견해를 근대의 복음주의자들에게 강요하려는’ (to impose upon

⁵ Bassett, ‘Theological Identity,’ cf. 91.

⁶ Bassett ‘Theological Identity,’ 91-94, 와일리에 대한 언급, *Christian Theology*, pages 1:140-142.

modern evangelicals a view of Scripture which Jesus and Paul renounced in rabbinical Judaism) 해롤드 린드셀과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같은 동시대인들의 무오설에 관한 노력을 거부했다.⁷

이와 유사하게 랄프 얼(Ralph Earle)은 성경은 구체적 무오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무오하다 (the Bible is infallible in what it tells us about God and salvation, not in detailed inerrancy)라고 한 초기 나사렛 신학자 에이 엠 힐즈(A. M. Hills)를 인용한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주장하는 무오성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 무류하다 (It is infallible as regards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written). 그것은 사악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계시로서 무류하다. 성경은 정직하고, 원하며, 찾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성결,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한다.⁸

그러고 나서 랄프 얼은 성경에 수사법과, 역사, 그리고 과학에(in rhetoric, history and science)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복음적 동료 학자들을 변호한다. 동시에 그의 동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고, 역사적 설명이 주의 깊은 해석학에 의해 조화될 수 있는 실제적 모순이(factual contradictions where the historical accounts could be harmonized by careful hermeneutics)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⁹

제이 케네스 그라이더(J. Kenneth Grider)도 비슷하게 상세함의 무오성(detailed inerrancy)을 배격했다. 그는 해롤드 린드셀이 인용하고 상세함의 무오성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웨슬리의 한 문장을 주목한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전체 웨슬리 신학의 문맥에서 보면 웨슬리가 스콜라주의적 칼빈주의의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무오성을 자신의 신학 방법론의 일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이 케네스 그라이더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경 자체는 무오성에 관심이 없다. 영감을 주장하지만 무오성은 아니다—적어도 전적 무오성은”(“...Scripture itself is not interested in inerrancy. It makes a claim for inspiration, but not for inerrancy—at least, not for total inerrancy).

제이 케네스 그라이더는 영감에 관해 주장하는 디모데후서 3 장 16 절을 살피고, 그 본문에 의하면 영감은 특히 가르침 (교리)과 행함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according to the text it is inspiration specifically for teaching (doctrine) and practice).¹⁰

⁷ Timothy L. Smith, “Reader’s Response: Determining Biblical Authority’s Base,” *The Christian Century* 95 (March 2, 1977): page 198.

⁸ A.M. Hills, *Fundamental Christian Theology*, Pasadena: C.J. Kline, 1931, page I:134.

⁹ Ralph Earle, “Further Thoughts on Biblical Inspiration,”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6, No. 1 (Winter 1963): pages 7-17, (특히 page 15).

¹⁰ J. Kenneth Grider, ‘Wesleyanism and the Inerrancy Issue, *WTJ* 19:2 (1984), pages 52-61.

랍 엘 스테이플즈(Rob L. Staples)는 웨슬리주의와 켈빈주의 토양에서 자라고 ‘인식론적 무오성’(epistemological inerrancy)을 주장하는 근본주의를 대조시킨다. 웨슬리주의는 다르며 그가 ‘구속론적 무오성’(soteriological inerrancy)이라고 칭하는 관점을 견지한다.¹¹ 다른 논문에서 그는 마틴 루터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뉘어진 구유이다.’ (‘The Bible is the manger in which Christ is laid’). 랍 스테이플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마틴 루터의 유비(analogy)의 핵심은 살아계신 말씀(the Living Word)인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도구이기에 목적 자체가 아니다. (But the latter is an instrument directing us to the former, and thus not an end in itself).¹²

성결 운동에서(the holiness movement) 성경 이해에 관한 논문에서 폴 엠 배셋은 그것의 역사와 내적 논리는 ‘린드셀과 같은 주장은 [상세함의 무오성] 신학적, 영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a call like Lindsell’s [for detailed inerrancy] is theologically and spiritually irrelevant.’)고 결론짓게 한다고 주장했다. 폴 배셋은 계속한다.

그것의 역사와 내적 논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게 한다. 즉 무오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무오성은 죄에 대해 납득시키고(carry conviction for sin),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과 의로움, 진정한 성결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관계 맺는 방법(how to relate to God and neighbor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해 성령님이 의도하신 성령님의 독특한 창조물로서 성경의 역할을 지칭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성경은 전적으로 무오하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is to be understood as wholly inerrant).

폴 배셋은 더 구체적인 무오성(the more detailed inerrancy (전적인 무오성 [inerrancy throughout]))을 배제한다.

그 운동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경험적인 또는 과학적인 정밀성은 확실히 구원론적으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은유적으로도 궁극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과학적 정밀성 자체 이외의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since empirical or scientific exactitudes certainly are not soteriologically ultimate and are not even metaphysically ultimate, they must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something other than scientific exactitude itself....). 대다수의 성결인들은 그러한 모든 질문들은 반드시 하늘과 땅의 모든

¹¹ Rob L. Staples, ‘Inerrancy,’ *Holiness Today*, June 1998, page 5.

¹² Rob L. Staples, ‘Scripture,’ *Holiness Today*, December 1998, page 11.

것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아닌 구원론적 충분성 (soteriological sufficiency)이라는 성경 자체의 궁극적 목적 질문에 굴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¹³

에이치 레이 더닝(H. Ray Dunning)은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권위의 기초를 무오성에 둔다고 언급하나 ‘그러한 합리주의적 방어는 설득력이 없다(less than compelling)’고 결론짓는다.¹⁴ 에이치 레이 더닝은 에이 엠 힐즈(A. M. Hills), 클라크 에이치 핀콕(Clark H. Pinnock), 리차드 에스 테일러(Richard S. Taylor), 에이치 오톤 와일리(H. Orton Wiley), 그리고 심지어 존 칼빈까지 인용하고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 성령의 내적 증거(*testimonium internum Spiritus sancti*, the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에 의해 설득되었다고 보며 성경의 권위에 대한 다른 견해를 지지한다. 그는 이러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선행은총 교리(the doctrine of prevenient grace)의 한 측면으로 본다.¹⁵

그렇다면 만일 있다 해도 소수를 제외한 나사렛 신학자 전체는 성경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해 성경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전적인 무오성(the complete detailed factual inerrancy of Holy Scripture)을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완전히 반대한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 한 몸으로서 그들은 믿음과 실천, 교리와 윤리의 문제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 헌신되어 있다. 성경이 모든 진술에서 전적으로 정확한가에 관한 질문은 교회가 교회의 공식적 신조에서 이런 저런 방향으로 밝혀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꽤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quite irrelevant).

헤럴드 오브 홀리니스(*Herald of Holiness*)의 두 편집자가 현재의 신조 4 절은 폭이 넓은 것(a broad one)이라는 매우 좋은 점을 밝혔다. 더블유 이 맥컴버(W. E. McCumber)는 4 절이 “우리가 전적 무오성에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어떤 이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듯이 우리 중에 ‘완전 영감’의 두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there are proponents of both concepts of ‘plenary inspiration’ to be found among us)고 ‘답변 코너’(The Answer Corner)에서 언급했다. 그 자신은 ‘성경이 오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It is not errorless) 성령께서 죄에 대해 납득시키고, 그리스도께 이끌며,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때 그것의 목적을 무오하게 성취할 것이다(it will infallibly achieve its purpose)’라고 결론 지었다.¹⁶ ‘질문 상자’(The Question Box)에서 웨슬리 트레이시(Wesley Tracy)는 무오성 견해(the inerrancy view)는 “완고하고, 우파적이며, 칼빈주의자인 근본주의자의 상표와 싸움의 외침이 되었다 (has become the trademark and battle cry of rigid, right wing, Calvinist fundamentalists)” 그리고 그것은 웨슬리주의 전통에 속하지 않았다고

¹³ Paul Merritt Bassett, ‘Theological Identity,’ 94f.

¹⁴ H. Ray Dunning, *Grace, Faith, and Holiness* (Kansas City: Beacon Hill, 1988), page 62.

¹⁵ Ibid, pages 58-65.

¹⁶ W. E. McCumber, *Herald of Holiness* March 15, 1985, page 31.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조 4 절이 “여유가 있는 것”(roomy one)이라고 칭하며 무오성을 믿는 완고한 근본주의자도 그 조항(4 절)에 동의할 수 있고 “덜 완고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 또한 몸을 편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elbow room)이 있다”고 말한다.¹⁷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생각을 가져다 준다. 구체적 무오성의 견해는 웨슬리 신학과 상충하고 지도적인 나사렛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4 절이 우리를 그러한 특정 견해에 제한하기 위해 수정된다면 두 견해 다룰 포괄하는 현재의 넓은 폭은 근본주의자의 좁은 견해로 대체될 것이다 (the present breadth which can comprehend both views would be replaced by this narrower fundamentalist view). 많은 지도적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그리할 것처럼 전체 나사렛 신학자들과 성경 학자들도 이 신조를 좁게 만드는 것에 매우 강하게 반대할 것이기에 그러한 동의안은 교단내의 매우 심각한 분열을 위협할 수 있다 (such a move would threaten a very serious division in the denomination). 다른 교단에서 본 분열과, 갈등, 고통은 우리의 일치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사렛 교단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러한 모든 이유들로 인해, 위원회는 이 수정안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사렛 사람들은 성경의 충분성과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그리고 교리와 윤리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성경의 최종적 권위에 대해 현재의 조항에 의해 헌신되어있다.

II. 신조 6 절 (속죄)에 관한 결의안 JUD-802 와 JUD-816 에 대한 반응 (RESPONSE TO RESOLUTION JUD-802 AND RESOLUTION JUD-816 REGARDING ARTICLE VI (ATONEMENT))

개관 (OVERVIEW)

2001 년과 2005 년, 그리고 2009 년의 각 중앙 총회에서 6 절 속죄의 용어(terminology)에 관한 문제가 결의안으로 제기되었다. 2001 년 용어 “공로적인”(meritorious)을 “희생적인”(sacrificial)으로 바꾸자는 3 개의 결의안을 대의원들이 제기했다. (“십자가 상에서 그의 [공로적인] 희생적인 죽음으로써...” [“...by His [meritoriou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입법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해 연구하도록 해 신조에서 두 용어다(“공로적인” 과 “희생적인”)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2001 년 중앙 총회와 그 연회는 수정안을 승인했고 따라서 “공로적인”과 “희생적인” 아무 용어도 현재의 신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십자가 상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2005 년과 2009 년의 중앙 총회에서 신조 6 절에 용어 “공로적인”을 다시 넣자는 결의안이 제기 되었다 (“...십자가 상에 그의 공로적인

¹⁷ Wesley Tracy, *Herald of Holiness*, January 1992, page 33.

죽음으로 인해...”). 두 번 다에 있어서, 그 결의안은 더 많은 연구를 위해 중앙 감독회에 회부되었다. 따라서 중앙 감독회는 성경 연구 위원회에 2009 년 중앙 총회에서 제기된 6 절에 관한 두 결의안을 심의해 2013 년 중앙 총회에 적절한 권고안을 제출 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결의안 JUD-802 (Resolution JUD-802): 신조 6 절 속죄의 문구에 용어 “공로적인”을 다시 넣기 원함 (“...십자가 상에 그의 공로적인 죽음으로 인해...” [“by his meritorious death on the Cross”]).

결의안 JUD-816 (Resolution JUD-816): “하나님의 사랑을 속죄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로서 (요한복음 3:16) 다양한 참고성구(reference)를 삽입하고 속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성구”를 삽입함으로써 신조 6 절 속죄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의 권고들 (COMMITTEE RECOMMENDATIONS)

권고 1 (Recommendation 1): 신조 6 절 속죄의 문구에 용어 “공로적인”을 삽입하고자 하는 결의안 JUD-802 를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조 6 절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남겨두기를 권고한다.

권고 2 (Recommendation 2): “하나님의 사랑을 속죄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로서 (요한복음 3:16) 다양한 참고성구(reference)를 삽입하고 속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성구”를 삽입함으로써 신조 6 절 속죄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결의안 JUD-816 을 거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조 6 절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남겨두기를 권고한다.

권고 3 (Recommendation 3): 위원회는 나사렛 교단의 다양한 기관들이 속죄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들과, 컨퍼런스, 그리고 저술들을 주관하고 생산해 내서 교회의 이해와 믿음을 증진하도록 2013 년 중앙 총회가 요구하기를 권고한다.

근거 (RATIONALE)

속죄 조항의 넓은 범위 (Broad range of the Atonement’s Provisions).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광대한 차원들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광범위한 이미지들을 사용한다. 그것들은 희생, 속전/ 구속, 화해, 만족, 대속, 도덕적 영향, 과 다른 것(sacrifice, ransom/redemption, propitiation, satisfaction, substitution, moral influence, and others)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속죄와 관련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표현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속죄를 통해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부여된 조항들의 온전한 모자이크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이다 (none of these can exhibit the full mosaic of provisions bestowed on sinful humanity through the atonement). 따라서 신조의 6 절이 다른 이미지들은 배제시키거나 무시한 채 한 이미지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십자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의 복합적인 성질과

그것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에서의 일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이 위원회가 이러한 권고를 하는 이유이다.

더구나 인간의 죄 됨(the sinfulness of humanity), 우리의 의로움과 온전 성결의 필요(our need for justification and full sanctification),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우심(the judgment and righteousness of God),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새롭게 하심(the renewal of all of creation)과 같은 다른 신조들에 표현된 성경의 진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신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간에 화해(reconciliation)하기 위한 사람과 피조물의 필요라는 현실에 풍성하게 답한다 (Romans 5:15-17).

교회의 신조에서의 간결한 언어 (Concise language in the Church's Articles of Faith). 교회의 신조는 두 가지 관심을 반영하고자 한다. 1) 각 교리를 위한 믿음의 본질적 요소를 소통하기 2) 각 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경감하거나 그것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상으로 초과하는 용어를 피하기. 그러므로 신조는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의도적으로 간결하다. 따라서 현재의 신조에 표현된 대로 교리의 중심적인 진리를 확인하는 것 만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공로적인” 을 복위 시키는 것은 불필요하다 (Unnecessary to Reinstate “Meritorious.”) 왜 “공로적인”을 복위 시키는 것이 불필요한지 많은 좋은 이유들이 있다. 1) 공로적인 이라는 말은 속죄 교리에 관한 존 웨슬리 자신의 설교에서 주요한 단어가 아니었고, 웨슬리에 관한 현대의 주요한 역사 학자들에 따르면 (콜린스[Collins], 매독스[Maddox], 윌리엄스[Williams]) 그의 교리에서 공로적인 이라는 말은 주요한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2) 에이치 오튼 와일리의 신학에서 비슷한 성질의 개념들인 만족(satisfaction), 대속(substitution), 화해(propitiation)는 강조되었지만 ‘공로적인’ 이라는 말은 강조되지 않았다. 3) ‘공로적인’ 이라는 단어는 자체로 성경에 나오는 말(biblical word)은 아니다.

현재 문장의 충분성 (Sufficiency of Current Statement). ‘공로적인’ 과 ‘희생적인’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타당하지만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이 나타내는 것은 이미 ‘속죄’라는 말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속죄’라는 용어는 그 자체에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따라서 그의 복종으로 인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공로로 인정받을 만한(merited) (또는 ‘얻었거나’ ‘공고하게 된’ [‘won’ or ‘secured’]—히브리서 9:12)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으로서 제공한 핵심 개념(key concept) 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

더 공동적인 연구가 필요함 (More collaborative study needed). 위원회는 속죄에 관한 이 본질적 교리를 위해 건강한 토론과 깊이 있는 연구의 가치를 인식한다. 그러나 그 의미의

광대한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 그러한 대화는 좁게 선택된 측면들을 초월해서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운 역사를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해함으로써 교회의 고백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사렛 교단은 속죄를 그것의 전체성 속에서 받아들이기에, 위원회는 교단 내의 신학적 정신을 가진 회원들이(by its theologically minded members) 더 깊은 연구와 대화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일은 성령의 감동 하에 성경의 저자들이 표현한 속죄의 이미지들과 그에 관련해 이후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부여한 종종 오류가 있는 이론들 간의 학문적이고 경건한 분별을 요한다.

십자가와 속죄의 역할은 그것이 종종 받는 것 보다 더 많은 강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관심을 우리는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선한 탐구는 교회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모든 교회가 주님의 대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더 앞장서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기대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2013년 중앙 총회가 나사렛 교단의 다양한 기관들이 속죄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들과, 컨퍼런스, 그리고 저술들을 주관하고 생산해 내서 교회의 이해와 믿음을 증진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를 권고한다.

확언 (AFFIRMATION)

교리는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정통은 정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orthodoxy should be translated into orthopraxy)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학문적 연구는 신자들의 몸의 믿음과 삶에 도움이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서의 복음에 의해 살도록 부름 받았다. 학자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연구하는 한편, 교회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빛으로 살아갈 책임이 있다. 웨슬리주의자들은 항상 마음과 삶에서 실천적인 구원론과 전도와 긍휼 사역에 관한 깊은 관심 (practical soteriology, both heart and life, and deep concern for evangelism and compassionate ministries)의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를 말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소외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평화로 이끌며, 따라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일부로 만드는 은혜의 실체를 계시한다 (에베소서 2:14-16; 골로새서 1:19-22). 박동(beat)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은 담을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것의 충만함 속에서 화해의 사역을 하도록 촉구한다 (에베소서 4:1-6; 고린도후서 5:14-15, 17-21).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을 화목시켰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로 화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라는 이 두 가지 명령에 성도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둘 다를 다루며, 우리가 서로를 기꺼이 용서하도록 힘을 주고, 우리의 소유와 삶을 나누는 방식에 동기를 부여하는 우리의 공동체적 기도의 삶(our corporate prayer life)을 형성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와 (고린도후서 5:20)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 만든다 (마태복음 5:9).

우리의 전적인 관심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있는 케이프 타운 언약 선언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밝힌다.

하나님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해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 없이는 화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신 요구인 정의 추구를 위한 기초와 동기이다. 진정하고 지속될 수 있는 화해는 과거와 현재의 죄의 인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상처받은 사람에게 고백,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받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또한 적합한 곳에서는 폭력과 억압(violence and oppression)에 의해 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정의나 보상을 구하는 데에 헌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서로 화해의 삶을 살아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화평케 하는 일과 노력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를 갈망한다.¹⁸

**장정 변경에 관해 2013 년 중앙 총회에 제출하는 위원회의 결의안 요청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REQUIRING A RESOLUTION TO THE 2013
GENERAL ASSEMBLY FOR MANUAL CHANGES)**

성경 연구 위원회(SCC)는 *나사렛 교단 장정*의 수정을 요하고 입법 위원회를 통해 2013 년 중앙 총회에 개별 결의안으로 상정되는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주의 (NOTE): *입법 참고사항(LEGISLATIVE REFERENCE)*이 권고안 옆에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고 각 위원회에 회부되었음(REFERRED).

성경 연구 위원회 권고 #1 (SCC RECOMMENDATION #1)

1. 신조 (JUD-2—특별 사법 위원회 (Special Judicial Committee))

장정에 새로운 단락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기로 결의함.

신조 (1-22 항)에 관해 중앙 총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교회의 전 세계적인 특성(the world-wide nature of the church)을 숙고하기 위한 신학자들의 모임(a body with

¹⁸ *The Cape Town Commitment: A Confession of Faith and a Call to Action* (The Lausanne Movement, 2011).

theologians)이 심의하도록 중앙 감독회에 회부하게 함. 위원회는 다음의 중앙 총회에 권고안이나 결의안과 함께 보고해야 함.

채택이 되면 이 결의안은 나사렛 교단 장정의 헌법 조항(Constitution section)에 위치되어야 함을 더 결의함.

이유:

1. 신조는 나사렛 교단의 본질적인 교리적 입장을 포괄한다.
2. 신조의 변경은 우리 교단의 세계적 특성을 숙고하는 신학자들(theologians that reflect the world-wide nature of our denomination)을 포함해 자질을 갖춘 개인들의 사려 깊고 종합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3. 이러한 연구는 중앙 총회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한다.
4. 이어지는 중앙 총회는 필요할 경우에 그것의 결정을 인도해 줄 잘 연구된 권고 또는 결의안들과 함께 연구의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5. 헌법 내에 이 결의안을 위치시키는 것은 그것이 신조와 같이 한 중앙 총회 투표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이다 (would not be subject to the vote of a single General Assembly).

존경의 마음으로 제출함,

성경 연구 위원회

토머스 킹 (Thomas King), 의장

알렉산더 바루기즈 (Alexander Varughese), 총무